近親婚을 통해 본 奈勿王 직계의 권력 장악과 智證王 계보 전승*

박 주 선**

1. 머리말
2. 奈勿王 직계의 권력 장악 과정
  1) 사위의 왕위계승권과 金氏 즉위
  2) 訥祇王-慈悲王-炤知王의 왕위계승
3. 智證王 계보 전승의 재검토
  1) 智證王 즉위의 혈연적 배경
  2) 葛文王 자격 변화와 至都盧葛文王
4. 맺음말

1. 머리말

智證王과 그 이전 왕들의 계보를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1] 그 까닭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凡陽 한국고대사연구기금의 2018년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1) 지증왕을 새로운 왕계의 창시자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申瀅植, 1977「新羅史의 時代區分: 三國史記 內容分析을 中心으로」『韓國史硏究』18; 李鍾旭, 1980『新羅上代王位繼承硏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李喜寬, 1990a「新羅上代 智證王系의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東亞硏究』20; 김창겸, 2014「신라 중고기 왕실계보와 왕위계승 연구: 특히 파른본『三國遺事』王曆을 통하여」『新羅史學報』30; 선석열, 2015『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혜안 등). 그 바탕에는 지증왕을 눌지왕~소지왕 등 내물왕 直系와는 다른 내물왕 傍系로 이해하여 중고기의 왕실 친족을 지증왕계로 명명한 의견[李基東, 1972「新羅奈勿王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53·54(1980『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에 재수

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증왕의 즉위는 訥祇王부터 炤知王까지의 父子繼承 흐름에서 어긋난다. 더욱이 그 계보는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奈勿王 증손, 『三國遺事』 王曆에는 내물왕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두 요소는 그를 왕위계승에서 멀어진 존재로 이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포항 냉수리 신라비〉(이하 〈냉수리비〉로 약칭)의 등장은 이러한 인식에 쐐기를 박았다. 〈냉수리비〉가 등장함에 따라 501~503년 사이의 空位 기간을 상정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지증왕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즉위했다고 파악하였다.[2)]

사실 지증왕은 神宮 설치(정비), 築城 및 지방제도 정비 등을 통해 소지왕의 치적을 이어갔으므로 지증왕의 즉위와 치세를 이전 왕들과의 연속이라는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덧붙여 殉葬 금지, 牛耕 도입, 新羅라는 國號 사용, 麻立干에서 王으로의 王號 변화, 喪服法 제정 등 지증왕대의 대변혁은 그의 왕권이 결코 단기간에 구축되지 않았음을 代辯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증왕의 계보 전승과 즉위 배경을 '권력 장악과 혼인'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시각, 즉 '혼인을 통한 권력 장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그리고

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직계와 방계를 각각 長子와 衆子로 이어지는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직계는 曾祖-祖-父-孫-曾孫처럼 곧바로 이어지는 관계이고, 방계는 형제나 조카 등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나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증왕은 내물왕의 방계가 아니라 직계임이 분명하다.

2) 기존에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근거로 智證王이 501년에 즉위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냉수리비〉에 보이는 至都盧葛文王이 지증왕과 동일인물로 파악됨에 따라 적어도 비가 제작된 503년 9월 25일까지는 그가 왕위에 오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줄곧 문제가 되던 계보 전승에 空位 기간이 더해지자 〈냉수리비〉 발견 직후 지증왕의 즉위를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결과로 이해한 논고가 다수 발표되었다. 盧重國, 1992 「迎日 冷水里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文暻鉉,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部의 性格과 政治運營問題」 『韓國古代史硏究』 3; 李喜寬, 1990a 앞의 논문; 1990b 「迎日冷水里碑에 보이는 至都盧葛文王에 대한 몇 가지 問題」 『韓國學報』 60; 鄭求福,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 『韓國古代史硏究』 3; 朱甫暾, 1989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기초적 검토」 『新羅文化』 6 등. 반면, 지증왕의 즉위가 비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보는 연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金羲滿, 1990 「迎日冷水碑와 新羅의 官等制」 『慶州史學』 9; 2000 「新羅 智證·法興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 『慶北史學』 23; 宣石悅, 2003 「麻立干時期의 王權과 葛文王」 『新羅文化』 22 등.

그 주된 소재로써 近親婚이라는 혼인 형태를 선택하였다.[3)]

본격적으로 지증왕의 계보 전승과 즉위 배경을 언급하기에 앞서 麻立干期 奈勿王 직계의 왕위 독점과 혼인 양상을 검토하겠다. 내물왕 직계가 근친혼을 통해 왕위를 독점하며 권력을 장악한 양상이 확인되고, 지증왕의 계보 전승과 즉위 배경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장에서 朴氏와 昔氏에 비해 왕권의 후발주자였던 金氏가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이용하여 왕위에 오른 뒤, 근친혼을 통해 세습에 성공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4)] 上古期 왕의 즉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어머니 혹은 아내의 혈통이 왕위계승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증왕 계보 전승을 재검토하면서 그가 왕과 갈문왕이 될 수 있었던 혈연적 배경, 그리고 그의 계보가 현전하는 형태로 남게 된 까닭도 유추해보겠다.

내물왕 직계의 왕위 독점은 尼師今에서 麻立干으로의 왕호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5)] 대개 마립간호 사용은 왕권 강화의 결과물로 이해하므로 그 변화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은 신라 왕권의 추이를 탐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한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위계승에는 가까운 혈연에게 물려준다는 대원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왕위계승과 혼인은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 내물왕 직계의 권력 장악 과정과 지증왕 계보 전승을

---

3) 『新唐書』 신라전에는 형제의 딸, 고모, 이모, 종자매 등 3-4촌을 아내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兄弟女・姑・姨・從姊妹, 皆聘爲妻), 『三國史記』 新羅本紀와 『三國遺事』 王曆을 통하여 신라 왕실의 근친혼은 대개 3-4촌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간혹 5-6촌 사이에도 혼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新唐書』 신라전은 혼인 범위의 제한을 드러내는 사료가 아니라 혼인 가능한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겠다.

4)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처음부터 성씨를 사용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라 왕실에서 姓氏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6세기 중반 眞興王代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찬자들이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성씨를 소급하여 기술했다고 이해하는 견해(李純根, 1980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 11-12면)에 동의하며 상고기 성씨를 기록에 남아있는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5) 麻立干을 왕호로 사용하는 起點을 『三國史記』 新羅本紀는 訥祇王, 『三國遺事』 王曆은 奈勿王으로 전한다. 비록 두 기록에서 마립간호 사용의 시작 시기가 다르지만 내물왕과 그 직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루면서 혼인(근친혼)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신라 왕실의 근친혼은 이사금기 昔氏 왕부터 확인되지만, 金富軾이 신라 근친혼에 대한 史論을 내물왕 즉위기사에 이어 배치하였다. 아마도 내물왕 후손들의 근친혼에 남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왕위계승 과정을 검토할 때에는 혈연적인 배경 외에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변수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한다.[6] 다만, 지증왕의 즉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보 전승에 얽힌 몇 가지 문제를 구명하는 일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치적 배경보다는 혈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계보 전승을 재검토하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2. 奈勿王 직계의 권력 장악 과정

1) 사위의 왕위계승권과 金氏 즉위

奈勿王 직계에 의한 麻立干 독점을 검토하기에 앞서, 金氏가 신라 최상위 지배층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권력 장악과 혼인, 그리고 왕위계승을 잘 드러내는 사례일 뿐더러 이후의 논의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신라 上古期 왕위는 朴·昔·金 등 각기 다른 姓을 가진 세력이 교대로 차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른바 '三姓交立'이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관련 기사를 통하여 박씨가 처음 왕위에 오른 후 석씨와 김씨가 차례로 신라 최고 지배층에 편입하였고 결국 즉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씨·김씨가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혼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6) 기왕에 지증왕의 즉위 과정을 검토한 많은 논저들이 있다. 그 중 소지왕이 사망하면서 김씨 내물왕 직계가 소멸하자 방계인 습보갈문왕계의 갈문왕으로서 마립간의 왕권을 보좌하던 지도로가 지배층의 합의를 거쳐 503년 10월에 정식 국왕으로 추대되었다고 파악하거나(宣石悅, 2003 앞의 논문, 110면), 소지왕 말년에 왕의 有故라는 비상상황에서 지도로갈문왕이 '攝政'을 하다가 즉위했다고 보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윤진석, 2014 『5-6세기 신라의 정치운영과 갈문왕』, 계명대학교 역사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75-94면).

A-1 : (南解王 5년[8]) 봄 정월에 왕은 脫解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長女를 그의 처로 삼았다.[7]

A-2 : (남해왕 7년[10]) 가을 7월에 탈해를 大輔로 삼고 軍國政事를 맡겼다.[8]

A-3 : (儒理王 34년[57]) 가을 9월에 왕이 병들자 신료들에게 말하기를, "탈해는 몸이 國戚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위가 輔臣에 있어 여러 차례 功名을 드러내었다. 짐의 두 아들은 재주가 그에게 훨씬 미치지 못한다. 내가 죽은 뒤 〈탈해를〉 大位에 오르게 하여 내 遺訓을 잊지 않도록 하라."[9]라고 하였다.

B-1 : 味鄒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또는 味照라고도 하였다】. 성은 金이다. 어머니 박씨는 葛文王 伊柒의 딸이다. 왕비 석씨 光明夫人은 助賁王의 딸이다. 그의 선조 알지가 鷄林에서 태어나자 탈해왕이 거두어 궁중에서 길러 나중에 大輔로 삼았다. 알지는 勢漢을 낳았고, 세한은 阿道를 낳았고, 아도는 首留를 낳았고, 수류는 郁甫를 낳았고, 욱보는 仇道를 낳았는데, 구도가 곧 미추의 아버지이다. 沾解가 아들이 없자 國人이 미추를 세웠다. 이는 김씨가 나라를 갖게 된 시초이다.[10]

B-2 : (阿達羅王 19년[172]) 봄 정월에 仇道를 波珍飡으로 삼고 仇須兮를 一吉飡으로 삼았다.[11]

B-3 : (伐休王 2년[185]) 2월에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혜를 左右軍主로 삼아 召文國을 정벌하였다. (중략) 5년 봄 2월에 백제가 와서 母山城을 공격하니 파진찬 구도에게 명하여 병사를 내어 막게 하였다. 6년 가을 7월에 仇道가 백제와 拘壤에서 싸워 이겨서 5백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12]

---

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5년 "春正月, 王聞脫解之賢, 以長女妻之." 『三國遺事』 卷1, 紀異 脫解王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爲時南解王知脫解是智人, 以長公主妻之, 是爲阿尼夫人").

8)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7년 "秋七月, 以脫解爲大輔, 委以軍國政事."

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34년 "秋九月, 王不豫, 謂臣寮曰, '脫解身聯國戚, 位處輔臣, 屢著功名. 朕之二子, 其才不及遠矣. 吾死之後, 俾卽大位, 以無忘我遺訓.'"

10)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즉위조 "味鄒尼師今立【一云味照】. 姓金. 母朴氏, 葛文王伊柒之女. 妃昔氏光明夫人, 助賁王之女. 其先閼智出於雞林, 脫解王得之, 養於宮中, 後拜爲大輔. 閼智生勢漢, 勢漢生阿道, 阿道生首留, 首留生郁甫, 郁甫生仇道, 仇道則味鄒之考也. 沾解無子, 國人立味鄒. 此金氏有國之始也." 밑줄 친 부분은 『三國遺事』 卷1, 王曆 未鄒尼叱今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第十三未鄒尼叱今. 一作味炤又未祖又未召. 姓金氏始立. 父仇道葛文王. 母生乎, 一作述禮夫人, 伊非葛文王之女朴氏. 妃諸賁王之女光明娘. 壬午立, 理二十二年).

11)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阿達羅尼師今 19년 "春正月, 以仇道爲波珍飡, 仇須兮爲一吉飡."

12)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伐休尼師今 "(二年) 二月, 拜波珍飡仇道・一吉飡仇須兮爲左右軍主, 伐召文國. (중략) 五年 春二月, 百濟來攻母山城, 命波珍飡仇道, 出兵拒之. 六年, 秋七月, 仇道與百濟戰於狗壤, 勝之, 殺獲五百餘級."

위의 사료는 신라 왕권의 후발주자였던 석씨와 김씨가 최고 지배층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료 A에 따르면, 昔脫解는 남해왕의 사위[女壻]가 되었고 大輔의 자리에 올라 공을 세운 후 신임을 얻었으며 남해왕에게 아들이 있었음에도 마침내 즉위하기에 이르렀다. 사료 B-1은 金閼智의 후손 仇道와 味鄒가 각각 박씨와 석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음을 보여주고, B-2와 B-3은 구도가 波珍飡으로서 몇 차례 軍功을 세운 사실을 전한다. 그리고 구도의 아들 미추는 왕위에 올라 신라 역사에서 첫 김씨왕이 되었으며 그 부인은 석씨 助賁王의 딸 光明夫人이었다. B에 혼인 시기가 드러나 있지 않아 군공과 혼인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탈해의 사례에 따르면 미추왕 즉위의 결정적 요인은 혼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첫 석씨왕 탈해와 첫 김씨왕 미추는 왕의 딸과 혼인하여 前王의 사위[女壻]로서 즉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附圖 1).[13]

사위의 왕위계승권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료가 『三國史記』 신라본기 탈해왕 즉위조에 보인다. '아들과 사위를 논하지 말고[無論子壻] 나이가 많으면서 어진 자가 왕위를 잇도록 하라'라는 남해왕의 말을 전하는 기사이다.[14] 이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上古期부터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에게도 왕위계승권이 있었다. 더욱이 사위의 아들, 즉 外孫이 즉위하는 사례도 몇 차례 확인된다.

특히 宣德王이 五廟에 아버지 開聖大王과 외조부 聖德王을 함께 모셨다는 사실은 宣德王의 왕위계승권이 성덕왕을 통해 전해졌음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다시 말해, 宣德王은 성덕왕의 외손이라는 자격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15] 이러한

13) 前王은 직전의 왕을 포함한 여러 先王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파악해야만 신라의 왕위계승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崔在錫・安浩龍, 1990「新羅 王位繼承의 系譜認識과 政治勢力: 平和時의 政治勢力이 王位繼承을 左右할 수 있는가」『社會와 歷史』17, 26-32면). 본고에서도 前王을 '직전의 왕을 포함한 여러 선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1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즉위조 "儒理將死曰, 先王顧命曰, '吾死後, 無論子壻, 以年長且賢者, 繼位.' 是以寡人先立. 今也宜傳其位焉."

15) 宣德王을 이은 元聖王은 五廟에 始祖大王・太宗武烈王・文武王은 그대로 둔 채, 聖德王과 開聖大王을 빼고 대신 자신의 조부 興平大王과 아버지 明德大王을 새로 모셨다(『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1년 春二月 "毁聖德大王・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考明德大王爲五廟"). 따라서 宣德王의 오묘는 不遷之主

사위 혹은 외손의 즉위는 神德王과 敬順王 등 신라 최말기까지도 기록에 보인다. 즉, 석씨와 김씨는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최고 지배층으로 편입하였고 더 나아가 왕위계승권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신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즉 전왕의 외손에게도 해당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신라사의 모든 시기에 걸쳐 두루 확인된다.

한편, 김씨 미추왕의 즉위는 사실상 석씨 혈연을 바탕으로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추왕 이전은 석씨 조분왕, 沾解王이었고, 미추왕 이후는 다시 석씨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儒禮王, 基臨王, 訖解王). 조분왕을 기준으로 하면 첨해왕은 동생, 미추왕은 사위, 유례왕은 아들, 기림왕은 손자, 흘해왕은 外孫이다(附圖 1). 즉, 미추왕은 김씨였지만 조분왕을 중심으로 한 석씨 혈연을 기반으로 즉위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16]

흘해왕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김씨 奈勿王이 즉위하였다. 내물왕의 계보는 이전 왕들과 달리 昔氏나 朴氏와의 관계가 약하다. 『三國史記』 신라본기에 따르면, 내물왕은 사료 B에 보이는 仇道의 손자이고 각간 末仇의 아들이며 미추왕의 조카이자 사위이다.[17] 미추왕의 아우인 말구는 김씨 休禮夫人과 혼인하여 내물왕

인 시조대왕 · 태종무열왕 · 문무왕, 그리고 외조부 성덕왕과 아버지 개성대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宣德王의 오묘 구성을 통해 오묘 제사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오묘 제사는 단순히 아버지 쪽 직계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의례였다. 아버지 쪽의 직계조상, 그리고 자신에게 왕위계승권을 연결해준 인물이 중복되는 현상이 대다수였겠지만, 신라에서는 사위(외손)의 왕위계승권이 인정되었고 실제로 사위(외손)로 즉위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계조상과 오묘의 배향자가 반드시 같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선덕왕이 조부가 아닌 성덕왕을 오묘에 모신 까닭에 대하여 성덕왕은 선덕왕의 외조부이면서 이미 혜공왕대에 오묘에 존재했기 때문에 선덕왕의 혁명에 대한 변명과 명분을 위해 선덕왕의 오묘에 포함되었다고 본 연구도 있다(邊太燮, 1964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敎育』 8, 70-71면). 그러나 이는 사위(외손)의 왕위계승권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16) 미추가 자신의 개인적 능력이나 가계의 힘이 아닌 骨正(世神葛文王) 직계 혈통의 대표자인 광명부인의 匹이라는 조건에 의지하여 즉위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李天雨, 2014 「新羅 上古期 葛文王의 册封과 變化」,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5면).

17) 『三國遺事』 王曆 奈勿麻立干에는 "父仇道葛文王, 一作未召王之弟■■角干."이라고 하였는데 『三國史記』 신라본기를 근거로 하면 '■■'는 末仇로 추정할 수 있다. 내물왕 아버

을 낳았고, 내물왕은 미추왕의 딸이자 자신의 4촌인 保反夫人과 혼인하였다. 이러한 혼인 양상을 통해 내물왕의 왕위계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부인이 모두 김씨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왕들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이다(그림 1).[18]

내물왕의 가계와 혼인(근친혼)은 앞서 언급했던 '권력 장악과 혼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위의 왕위계승권 인정을 드러내는 證例가 될 수 있다. 이를 보반부인의 계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내물왕과 보반부인의 혼인은 『三國史記』 신라본기나 『三國遺事』 왕력에 따르면 4촌 남매 사이의 근친혼이다. 그러나 보반부인의 아버지 미추왕 사망과 남편 내물왕 즉위 사이에는 73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반부인은 미추왕의 딸이 아니라 그 가계에 속하는 손녀나 증손녀일 수 있다. 또한 내물왕이 50년 가까이 재위하였으므로 실성왕의 왕비 阿留夫人도 미추왕의 딸이라기보다는 그 가계에 속한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이 미추왕의 딸로 기록된 까닭은 내물왕과 실성왕의 즉위 배경 중 미추왕의 가계, 즉 왕비의 가계 혹은 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19] 결국 내물왕과 실성왕은 계보상 미추왕의 사위라는 자격으로 즉위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실성왕의 혈연은 내물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내물왕·실성왕은 父邊으로 구도의 손자들이므로 4촌이고,[20] 妻邊으로는 미추왕의 사위이다.[21] 그럼

지에 대한 두 가지 전승(구도, 말구)이 있는 셈이다. 미추왕의 재위시기(262~283)와 내물왕의 재위시기(356~401)를 고려하면, 양자가 모두 구도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내물왕의 아버지는 구도보다 한 세대 아래인 말구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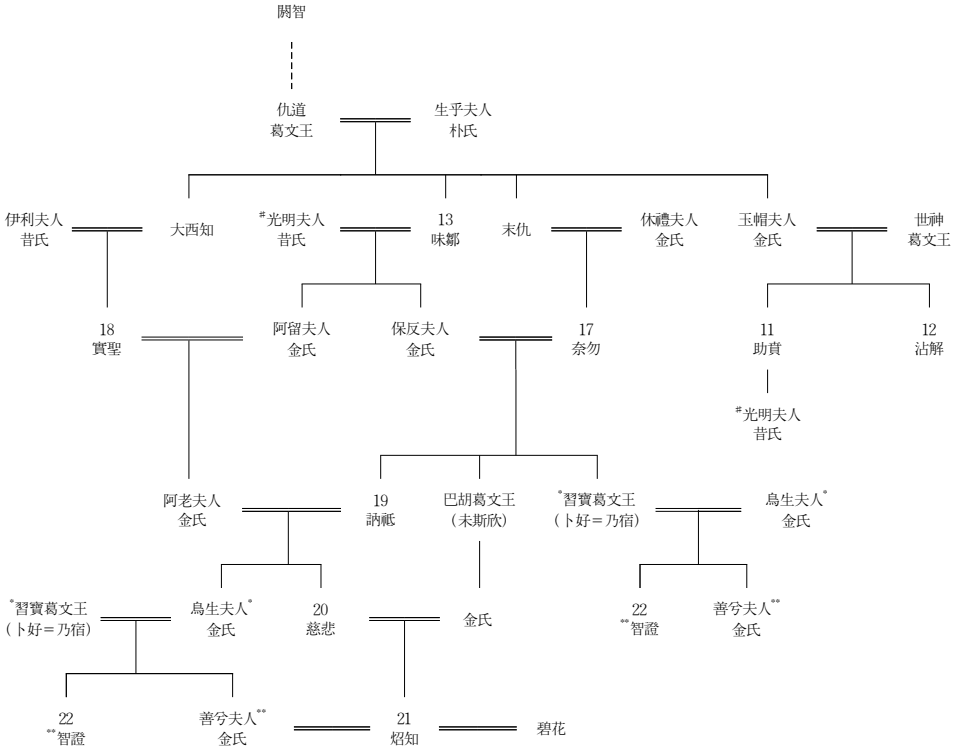
18) 李鍾旭, 1980 앞의 책, 83면.

19) 위의 책, 83-84면에서는 金氏 중에서 味鄒系 직계가 내물왕과 실성왕의 왕위계승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고 보았다.

20) 실성왕의 아버지 大西知에 대한 기록에 차이가 있다. 『三國史記』 신라본기 실성왕 즉위조는 閼智의 후손이라고만 하였으나, 『三國遺事』 왕력 실성왕조에는 미추왕의 아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신라본기 내물왕 37년(392)의 '王以高句麗强盛, 送伊湌大西知子實聖爲質'과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9년(391)의 '新羅王遣姪實聖爲質'을 근거로 왕력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왕위계승이나 계보를 다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父系·母系에 대하여 각각 아버지·어머니를 통해 연결된 친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학에서 말하

에도 서로를 政敵으로 인식하였다.[22]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성왕의 어머니는 석씨로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신라왕의 혈연이다.[23]



〈그림 1〉 신라 마립간기 근친혼

는 부계 · 모계는 전혀 다른 범주의 개념이며, 외조부는 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한상복·이문웅·김광억, 2011『(개정판)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70-173면]. 따라서 외조부로부터 외손에게 이어지는 왕위계승권을 인정하는 신라의 상황에 대하여 모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부계 · 모계 등을 지양하고 대신 父邊 · 母邊 등으로 서술하겠다.

22) 내물왕이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고, 이후 즉위한 실성이 내물왕의 아들 미사흔과 복호를 각각 왜와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일련의 사건에서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내물왕의 아들인 눌지는 실성왕을 제압하고 왕위에 올랐고, 이후 자신의 형제들을 신라로 복귀시켰다.

23)『三國史記』신라본기에는 阿干 昔登保의 딸 伊利夫人,『三國遺事』왕력에는 阿干 昔登也의 딸인 禮生夫人이라고 하였다.

석씨가 더 이상 신라왕의 계보에서 등장하지 않게 된 배경으로는 내물왕의 장자 눌지왕이 실성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사건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실성왕 사망기사 바로 앞에 배치된 吐含山 붕괴 기사도 하나의 단서가 된다. 토함산은 석씨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실성왕은 母邊인 석씨의 지지를 받아 즉위할 수 있었고 그를 타도한 눌지왕은 석씨를 최고 지배층에서 배제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25] 석씨 혈연은 9대왕 奈解부터 16대 흘해까지 오랜 기간 왕위를 차지했으나 결과적으로 11대 조분왕의 사위로 즉위한 미추왕의 후예들에게 왕위를 빼앗긴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까지 석씨와 김씨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왕위계승에서 부인의 가계[妻邊] 혹은 어머니 측의 가계[母邊]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26]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면 이후 나타나는 내물왕 직계의 근친혼과 왕위계승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2) 訥祗王-慈悲王-炤知王의 왕위계승

앞 절에서 奈勿王은 전왕들에 비해 기존의 王姓이었던 박씨나 석씨와의 혈연이 약하며 왕위계승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어머니, 부인이 모두 김씨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그의 직계 후손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김씨 내물왕 직계는 근친혼을 통해 왕과 왕비를 연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권력을 장악

---

24) 탈해가 처음 신라에 들어와 터를 잡은 곳이 토함산 아래이며, 사망 후에는 토함산의 수호신이 되었기 때문에 토함산은 석씨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李基白, 1972「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震檀學報』33(1974『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6-197면에 재수록)].

25) 실성왕의 어머니 쪽 가계가 그의 즉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李光奎, 1977『韓國家族의 史的硏究』, 一志社, 130면). 그러나 본문에 제시한 요소들을 근거로 실성왕은 어머니 쪽인 석씨의 지지를 받아 즉위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6) 본문에서 서술했듯이 석씨와 김씨의 왕위계승은 전왕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따라서 신라 '삼성교립'의 실제는 사위에게 왕위계승권을 인정해주었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이재환, 2017「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大丘史學』127, 16-24면). '삼성교립'이라는 발상은 후대 연구자들이 父邊만을 고려한 결과물이므로, 신라 당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통하여 즉위했던 미추왕·내물왕의 후손들이 근친혼을 하여 다른 가계의 인물이 사위 자격으로 왕위에 오르는 상황을 방지했기 때문이다.[27] 즉, 사위 자격으로 등극한 내물왕의 후손들이 이제는 사위의 왕계승권을 역이용하여 왕위를 독점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訥祇王-慈悲王-炤知王의 계보 및 혼인을 검토하며 이에 대해 드러내도록 하겠다.

눌지왕의 부모는 내물왕과 보반부인이고, 왕비는 阿老夫人 김씨이다. 왕위계승과 관련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인이 모두 김씨라는 점은 내물왕과 같다. 그런데 아로부인의 아버지는 눌지왕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난 실성왕이다. 이 혼인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눌지왕이 다른 왕비를 맞이한 기록이 없고 아로부인의 소생이 왕위를 이었으므로(자비왕) 그녀를 배척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즉, 왕위에 오른 눌지왕은 실성왕을 지지하던 세력을 배제하지 않고 흡수했다고도 볼 수 있다.[28] 어쩌면 '실성왕의 사위'라는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미 내물왕의 아들, 미추왕의 외손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실성왕의 사위라는 조건은 그의 등극에 더욱 힘을 보태주는 혈연적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9] 한편, 아로부인의 어머니가 미추왕의 딸 아류부인이므로 눌지왕과 아로부인의 혼인은 모변으로 이종사촌 사이의 근친혼이고, 부변으로 6촌 간의 혼인이 된다(그림 1).

눌지왕의 뒤를 이어 자비왕과 소지왕이 차례로 즉위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자비왕과 소지왕의 계보 및 혼인은 함께 묶어 검토하겠다.

---

27) 신라 상대에 보이는 왕실 近親婚의 기능에 대하여 왕위계승에서 소외되는 근친이 없도록 하여 왕실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자 왕권의 배타적 소유를 위한 骨品制的 노력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河廷龍, 1994「新羅上代 葛文王 硏究」『民族文化硏究』 27; 1995「新羅上代 王位繼承硏究: 王室內 近親婚을 中心으로」『新羅文化』 12). 이 중에서 왕권의 배타적 소유라는 기능은 본고의 논지와 상통한다.

28) 근친혼이 갖는 의의를 유대와 결합으로 지적한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John Beatie(崔在錫 옮김), 1978『社會人類學』, 一志社, 165-168면].

29) 前王과 보다 많은 관계를 맺은 인물이 왕위계승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河廷龍, 1995 앞의 논문, 186-190면).

C-1 : (慈悲王 4년[461]) 봄 2월에 왕이 舒弗邯 未斯欣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30]

C-2 : 제20대 慈悲麻立干. 金氏이다. 아버지는 訥祗이고, 어머니 阿老夫人는 次老夫人이라고도 하는데 實聖王의 딸이다. 戊戌에 즉위하여, 21년을 다스렸다. 왕비는 巴胡葛文王 또는 未叱希 角干 또는 未欣 角干의 딸이다.[31]

D-1 : 炤知【毗處라고도 한다】마립간이 즉위하였다. 자비왕의 長子이고 어머니 김씨는 舒弗邯 未斯欣의 딸이고 왕비 善兮夫人은 乃宿 伊伐飡의 딸이다.[32]

D-2 : 제21대 毗處麻立干. 炤知王이라고도 한다. 김씨이다. 자비왕의 三子이고 어머니는 未欣 角干의 딸이다. 己未에 즉위하여 21년을 다스렸다. 왕비는 期寶葛文王의 딸이다.[33]

위의 사료 C-1·C-2, D-1·D-2는 자비왕비의 가계를 전한다. 이에 따르면 자비왕의 妃父는 未斯欣, 巴胡葛文王, 未叱希, 未欣 등으로 전한다. 未叱希, 未欣은 눌지왕의 아우인 未斯欣을 지칭하는 이표기임이 확실하다.[34] 그러나 巴胡葛文王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파호갈문왕을 눌지왕의 다른 아우인 卜好로 보는 견해는 巴와 卜이 같은 音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기되었다.[35] 즉, 이름과 갈문왕호가 같다고 보는 주장이

---

30)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4년 "二月, 王納舒弗邯未斯欣女爲妃."

31) 『三國遺事』 卷1, 王曆 "第二十慈悲麻立干. 金氏. 父訥祗, 母阿老夫人, 一作次老夫人, 實聖王之女. 戊戌立, 治二十一年. 妃巴胡葛文王女, 一作未叱希角干, 一作未欣角干女." 밑줄 친 부분은 매우 이례적인 기재방식이다. 특히 두 차례 표기된 '女' 중 하나는 오류로 볼 수 있다. 원래는 '妃①, 一作②, 一作③女' 혹은 '妃①女, 一作②, 一作③'의 형태였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일단 파호갈문왕 뒤에 '女'가 없다고 상정한 해석을 본문에 제시하였다. '一作'의 용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후술하겠다.

3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즉위조 "炤知【一云毗處】麻立干立. 慈悲王長子, 母金氏, 舒弗邯未斯欣之女, 妃善兮夫人, 乃宿伊伐飡女也."

33) 『三國遺事』 卷1, 王曆 "第二十一毗處麻立干. 一作炤知王. 金氏. 慈悲王第三子, 母未欣角干之女. 己未立, 理二十一年. 妃期寶葛文王之女."

34) 『日本書紀』 卷9, 神功 5년에도 미사흔의 이표기가 확인된다. 박제상이 미사흔을 구출하는 기사에서 미사흔을 未叱希와 유사한 微叱許智伐旱으로 표기하였다.

35) 今西龍, 1933 「新羅葛文王考」 『新羅史硏究』, 近澤書店, 252면. 葛文王 전반에 대해 검토한 李基白도 이에 동조하였다[李基白, 1973 「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1974 앞의 책, 12-13면에 재수록)]. 잘 알려진 張保皐의 인명 표기(弓巴; 弓福) 외에도 파(巴)와 복(卜; 伏)이 통용된 사실은 확인된다(『三國遺事』 卷4, 義解5 蛇福不言 "京師萬善北里有寡女, 不夫而孕旣產. 年至十二歲不語亦不起. 因號蛇童 【下或作蛇卜, 又巴又伏等, 皆言童也】").

다. '一作'에 대해서는 자비왕의 비부가 눌지왕의 아우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누구인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모호하게 표기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36] 이와는 반대로, 이름과 갈문왕호가 서로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파호갈문왕과 복호를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37] 두 의견 모두 논거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어느 한 쪽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C-2에 보이는 '一作'의 용례를 검토하여 파호갈문왕과 미사흔(미흔)의 동일인 여부를 따져보고자 한다.

C-2를 분석하면서 '一作'의 용례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이미 제출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妃巴胡葛文王女, 一作未叱希角干, 一作未欣角干女'에서 파호갈문왕과 미질희 각간, 그리고 미흔 각간을 모두 동격으로 간주하려면 파호갈문왕 뒤에 붙은 '女'가 없어야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첫 一作과 두 번째 一作을 각각 '파호갈문왕녀'와 '미질희각간'에 대한 주석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자비왕이 파호갈문왕(복호)의 딸 및 미사흔의 딸과 각각 혼인했다면서 파호갈문왕과 미사흔을 별개의 인물로 결론지었다(복호=파호≠미사흔). 또한 『三國遺事』의 '一作'에 인명이나 지명의 異稱을 기재한 용례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一作②'에서 ①과 ②가 지칭하는 대상이 相異한 용례를 거론하며 異稱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을 반박하였다.[38] 그러나 반박을 위해 제시한 사료는 紀異·義解·孝善 등 모두 王曆이 아닌 다른 篇目에 자리한 기사들이다. 왕력과 기타 편목의 찬자가 같지 않으리라는 의심은 설득력이 있으므로,[39] 왕력의 '一作'과 다른 편목의 '一作'을 동일선상에서 직접 비교·대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36) 李基東, 1972 앞의 논문(1980 앞의 책, 73-74면에 재수록).

37) 宣石悅, 2003 앞의 논문, 99-100면; 이천우, 2016「신라 상고기 지도로의 갈문왕 책봉과 왕위 계승」『西江人文論叢』46, 144-145면. 이름과 갈문왕호가 다른 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助賁王·沾解王의 아버지인 骨正은 世神葛文王이고 眞平王의 두 아우인 伯飯과 國飯은 각각 眞正葛文王과 眞安葛文王이다. 그리고 武烈王의 아버지인 龍春은 최근 알려진 파른본『三國遺事』왕력에 文興葛文王으로 기록되어 있다.

38) 윤진석, 2014 앞의 논문, 51-53면.

39) 金相鉉, 1985「三國遺事 王曆篇 檢討: 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東洋學』15; 김상현, 2013「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東方學志』162; 하일식, 2016「해제」『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혜안.

〈표 1〉『三國遺事』王曆에 보이는 '一作' 등의 용례

	一作		一云, 或云 등		계
	이칭(이표기)	相異+不明	이칭(이표기)	相異+不明	
신라	27	3	8	3	41
고구려	6	1	2	0	9
백제	7	1	3	2	13
가야	2	0	1	0	3
계	42	5	14	5	66

이러한 이유로『三國遺事』왕력에 한정하여 '①, 一作②'에 대한 용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 '一云'이나 '或云' 등 '一作'과 유사한 표현도 포함하여 그 수치를 표로 정리하였다(표 1).[40] 그 결과, ①과 ②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異稱(異表記)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지칭하는 대상이 相異한 용례도 확인되었지만 극히 적었다. 相異 항목에 의미 不明인 사례를 더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를 토대로 '①, 一作②'에서 ①과 ②는 대체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一作'의 용례 분석에서 가장 큰 난점은『三國遺事』王曆에서 C-2의 자비왕비 부분과 똑같은 기재방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C-2의 '①女, 一作②, 一作③女'는 매우 특이하다. ②와 ③이 동일인임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형태의 기사를 통하여 ①과 ②의 관계를 검토해보겠다. 먼저 '女'의 위치 문제이다. 지증왕의 妃는 '①, 一作②女'라고 하였고,[41] 僖康王의 妃는 '①女, 一云②'이라고 하였다.[42] 두 자료는 '女'의 위치와 무관하게 ①과 ②를 이칭(이표

40)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행한『파른본 삼국유사 교감』(2016 혜안)을 저본으로 삼아『三國遺事』王曆에 보이는 '一作' 등의 용례를 정리하였다. 단, 논의의 핵심인 C-2의 자비왕비 부분은 제외하였다.

41) 파른본의 판각 상태 등을 고려하면 지증왕 왕비를 언급한 '撿攬代漢只登許, 一作■■之女'에서 '■■'를 '登許'로 추독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이부오, 2014「파른본『三國遺事』王曆의 판본상 위치와 異表記의 서술맥락」『新羅史學報』30, 37면). 또한『三國史記』지증마립간 즉위조를 근거로 하면 '■■'는 '登欣'일 수도 있다.

42)『三國遺事』卷1, 王曆 僖康王 "妃文穆王后忠孝角干之女, 一云重恭角干." 여기서 말하는 忠孝와 重恭은 忠恭의 이칭(이표기)이다(『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즉위조 "妃文穆夫人, 葛文王忠恭之女").

기)으로 볼 수 있는 용례이다. 따라서 '①女, 一作②, 一作③女'에서 ① 뒤의 '女'를 근거로 ①과 ②·③을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없다. 오히려 〈표 1〉을 참고하면, ①·②·③은 모두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으로, 희강왕의 母에 대한 기사이다. '美道夫人, 一作深乃夫人, 一云巴利夫人. 謚順成大后, 忠衍大阿干之女也.'에서 美道夫人·深乃夫人·巴利夫人은 모두 동일인에 대한 이칭(이표기)이다. 이를 통해서도 '①女, 一作②, 一作③女'에서 ①·②·③은 모두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43]

용례를 분석해보니 파호갈문왕과 미사흔(미흔)은 동일인의 이칭(이표기)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D-1과 D-2 등 다른 기록에서 자비왕의 妃父를 모두 미사흔(미흔)으로 적시하면서 복호는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용례 검토와 일치한다. 따라서 파호갈문왕은 복호가 아닌 미사흔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자비왕의 비부 미사흔은 눌지왕의 아우이므로 자비왕의 혼인은 4촌 사이의 근친혼이다. 이로써 실성왕, 눌지왕에 이어 자비왕의 혼인도 4촌 사이의 근친혼임을 알 수 있다.

D-1과 D-2는 소지왕의 妃를 각각 內宿 伊伐飡의 딸 善兮夫人, 그리고 期寶葛文王의 딸로 전한다. 기보갈문왕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習寶葛文王과의 관계이다. 『三國遺事』 왕력에 기보갈문왕을 눌지왕의 아우이며 지증왕의 아버지로 전하지만, 『三國史記』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즉위조에는 지증왕의 아버지를 習寶葛文王으로 기록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지증왕의 계보를 검토하며 상술하겠다. 여기에서는 일단 양자를 동일인물로 보고, 습보갈문왕으로 지칭하겠다.

다음으로, 내숙과 습보(기보)갈문왕의 동일인물 여부이다. 습보갈문왕의 딸을 先妃, 내숙의 딸을 後妃로 보아 별개의 인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44] 이와 관련하여 신라에서는 왕의 배우자가 복수일 때에 文聖王처럼 納妃 사정을 따로 전하거나,[45] 그 호칭을 달리 표기하여 구분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46] 그러나 소

43)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C-2의 '①女, 一作②, 一作③女'는 '①女, 一作②, 一作③' 혹은 '①, 一作②, 一作③女'의 誤記일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44) 윤진석, 2014 앞의 논문, 53-54면; 선석열, 2015 앞의 책, 117-119면.

45)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文聖王에는 문성왕이 3년에 부인 박씨를 왕비로 삼았고, 이듬해에 金陽(魏昕)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음을 따로 기록하였다. 이밖에 소지왕과 碧花의 일화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지왕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소지왕과 碧花의 일화가 있지만, 그녀는 捺已郡 출신의 지방민이므로 습보갈문왕 혹은 내숙 이벌찬과 무관하다.[47] 반면, 습보갈문왕과 내숙을 같은 인물로 보는 주장도 있다.[48] 이 주장은 앞서 파호갈문왕을 검토하며 언급했듯이, 이름과 갈문왕호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강조한다. 미사흔이 서불한이었다가 후에 파호갈문왕이 되었듯이 내숙도 이벌찬에서 습보갈문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49] 다시 말하지만, 이름과 갈문왕호를 동일인 여부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반면 복수 왕비를 전하는 기록의 存否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내숙 이벌찬을 지증왕의 아버지이자 습보갈문왕으로 봉해진 인물로 파악하고자 한다.

습보갈문왕은 소지왕비 선혜부인의 아버지이므로 선혜부인은 지증왕과 남매가 된다. 따라서 선혜부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지증왕의 그것과 동일하다. 지증왕의 어머니를 『三國史記』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즉위조에는 烏生夫人, 『三國遺事』 왕력에는 烏生夫人이라고 하였지만, 字形의 유사함과 그 아버지를 모두 눌지왕으로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겠다(이하 조생부인으로 지칭). 눌지왕의 아우 습보갈문왕이 눌지왕의 딸 조생부인과 혼인하였으므로 그 자녀인 선혜부인과 지증왕은 내물왕 직계의 근친혼 소생이다. 또한 소지왕은 눌지왕과 자비왕이 그러했듯이 4촌 간의 근친혼을 행하였다. 소지왕과 선혜부인은 눌지왕의 손자·외손녀이고 소지왕의 아버지 자비왕은 선혜부인 어머니인 조생부인과 남매이므로 선혜부인은 소지왕의 고종사촌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눌지왕, 자비왕, 그리고 소지왕 등 내물왕 직계는 왕비를 내물왕 직계 안에서 구하며 4촌 사이의 근친혼을 하였다(그림 1).[50] 더욱이 소지왕과 선혜부인의 혼인은 내물왕 직계 근친혼 소생 간의 근친혼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

46) 신라왕에게 복수의 배우자가 있으면 『三國史記』 신라본기는 後宮(孝成王, 哀莊王) 혹은 元妃·次妃(惠恭王) 등으로 표현하였고, 『三國遺事』 왕력은 先妃·後妃(眞平王, 聖德王, 景德王) 혹은 先妃·妃(惠恭王) 등으로 구분하였다.

47)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22년.

48) 朴南守, 2003 「新羅 和白會議에 관한 再檢討」 『新羅文化』 21, 219면.

49) 이천우, 2016 앞의 논문, 142-147면.

50) 범위를 넓혀 실성왕의 혼인을 보아도 마찬가지 양상이 확인된다. 실성왕의 아버지 대서지와 실성왕비 阿留夫人의 아버지 미추왕은 형제이므로 실성왕과 아류부인은 부변으로 4촌이다.

다. 소지왕의 부모는 모두 내물왕의 손자·손녀로 서로 4촌 사이이고, 선혜부인의 부모는 각각 내물왕의 아들과 손녀로 叔姪 관계이다. 즉 이 혼인은 4촌 사이의 근친혼이면서 부변으로 5촌 사이인 다른 세대 간의 결합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지왕과 선혜부인의 복잡한 혈연관계는 내물왕 직계가 그 내부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근친혼을 행했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도 왕위계승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내물왕 직계는 근친혼을 통해 같은 내물왕 직계 내에서 사위를 구함으로써 다른 가계로 왕위계승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부자계승을 이루어냈다.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역이용하여 왕위계승에서 변수를 제거하고 왕위를 독점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근친혼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51] 이상에서 검토했듯이, 미추왕이 김씨로서는 처음 왕위에 오른 과정과 내물왕 직계가 왕위를 독점해나가는 과정은 '권력 장악과 혼인'의 상관관계, 즉 '혼인을 통한 권력 장악'을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52]

3. 智證王 계보 전승의 재검토

1) 智證王 즉위의 혈연적 배경

앞 장에서 '권력 장악과 혼인'의 관계에 집중하여 후발주자였던 金氏가 즉위하

51)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고구려는 신라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三國遺事』 卷1, 紀異 實聖王에서 실성왕과 눌지왕 즉위에 고구려가 개입한 기사, 『日本書紀』 卷14, 雄略 8년에서 신라에 주둔한 고구려군을 신라가 축출하는 기사, 그리고 〈충주고구려비〉의 '新羅土內幢主'나 경주에서 출토된 호우총 호우 및 延壽銘 은제그릇 등은 이때의 상황을 드러내는 자료이다. 눌지왕이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졌던 아우 卜好를 귀환시켰던 배경에는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본문에서 서술한 내물왕 직계의 왕위 독점과 권력 장악도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눌지왕대 고구려군 축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할 수 있다(장창은, 2004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硏究』 33).

52) 근래 마립간기 근친혼을 주목한 연구에서는 내물왕계 왕실이 눌지왕부터 소지왕까지 근친혼을 행하여 왕실의 결속과 안정을 도모했다고 지적하였다(선석열, 2015 앞의 책, 79-120면). 본고의 이해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고 奈勿王 직계가 近親婚을 통해 麻立干을 독점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물왕 직계 내부에서 대를 이어 근친혼을 행함으로써 근친혼 소생 간의 근친혼이 발생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번 장에서 재검토하려는 지증왕 계보 전승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거듭된 근친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증왕 즉위의 혈연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그의 계보를 전하는『三國史記』신라본기와『三國遺事』왕력의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1 : 智證麻立干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金氏이고, 이름은 智大路【혹은 智度路 또는 智哲老라고도 한다】이다. 奈勿王의 증손으로 習寶葛文王의 아들이고, 炤知王의 再從弟이다. 어머니는 김씨 烏生夫人으로 訥祇王의 딸이고, 왕비는 朴氏 延帝夫人으로 伊湌 登欣의 딸이다. 왕은 체격이 매우 컸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前王이 薨하였는데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위를 이어 받았다. 이 때 나이는 64세였다.[53]

E-2 : 제22대 智訂麻立干. 智哲老 또는 智度路王이라고도 하며, 金氏이다. 아버지는 訥祇王의 동생 期寶葛文王이고, 어머니 烏生夫人은 訥祇王의 딸이다. 왕비 迎帝夫人은 撿攬代漢只登許 또는 ■■ 角干의 딸이다. 庚辰에 즉위하여, 14년을 다스렸다.[54]

지증왕의 계보 문제는 아버지 계보의 불확실함에서 기인한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명칭부터 검토해보겠다. E-1은 習寶葛文王, E-2는 期寶葛文王이라고 하여 아버지 명칭을 다르게 전한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지증왕의 아버지로 서술되어있다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55] 그리고 〈냉수리비〉 발견 이후 이를 보완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냉수리비〉에서 신라 六部의 하나인 習比部를 斯

53)『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즉위조 "智證麻立干立. 姓金氏, 諱智大路【或云智度路, 又云智哲老】. 奈勿王之曾孫, 習寶葛文王之子, 照知王之再從弟也. 母金氏烏生夫人, 訥祇王之女, 妃朴氏延帝夫人, 登欣伊湌女. 王體鴻大, 膽力過人. 前王薨, 無子, 故繼位. 時年六十四歲."

54)『三國遺事』卷1, 王曆 "第二十二智訂麻立干. 一作智哲老又智度路王, 金氏. 父訥祇王弟期寶葛文王, 母烏生夫人訥祇王之女. 妃迎帝夫人, 撿攬代漢只登許, 一作■■角干之女. 庚辰立, 理十四年."

55) 末松保和, 1954「新羅中古王代考」『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88면.

彼部라고 표현한 사례를 근거로 習과 斯는 서로 통하는 同音異寫라고 할 수 있고, 期寶를 斯寶의 誤記로 볼 수 있으므로 斯寶와 習寶는 동일인물이 된다고 한다.[56] 앞서 언급했듯이, 지증왕의 아버지는 習寶葛文王이라고 표기하겠다.

다음으로 습보갈문왕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 절에서 습보갈문왕은 내물왕의 아들이고 눌지왕의 아우인 내숙 이벌찬이라고 했으나 사료에서 눌지왕의 아우라고 명시된 인물은 卜好와 未斯欣 뿐이다. 습보갈문왕을 복호나 미사흔과는 다른 인물로 간주하여 눌지왕의 아우를 3명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57] 굳이 사서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인물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58] 미사흔이 巴胡葛文王이므로 복호를 習寶葛文王으로 파악하는 편이 순리이다. 즉, '복호=내숙=습보갈문왕'이 된다.

E-1과 E-2는 언뜻 양립할 수 없는 듯 보인다. E-1은 내물왕 증손이라고 했고, E-2는 아버지인 습보갈문왕을 눌지왕의 동생이라고 했으므로 지증왕이 내물왕의 손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보 전승의 차이로 인하여 신라본기(E-1)를 취신하는 입장은 '내물왕-■-습보갈문왕-지증왕'으로 이해하였고,[59] 왕력(E-2)을 신뢰하는 면에서는 '내물왕-습보갈문왕-지증왕'으로 파악하였다.[60]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불신하였을 뿐, 계보

56) 金永萬, 1990「迎日冷水里新羅碑의 語文學的 考察」『韓國古代史硏究』3, 73면; 선석열, 2015 앞의 책, 93면.

57) 今西龍, 1933 앞의 논문, 252면; 李鍾旭, 1980 앞의 책, 91면.

58) 이천우, 2016 앞의 논문, 146-147면.

59) '내물왕-기보-습보-지증왕'이 대표적이다(今西龍, 1933 앞의 논문, 253면). 또한 이를 수용하면서 기보갈문왕에게 내숙과 습보갈문왕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을 가능성과 혹은 양자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도 있었으나 확고한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李鍾旭, 1980 앞의 책, 90-93면). 한편으로 신라본기를 신뢰하여 왕력의 기록을 조정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기보와 습보를 동일인으로, 그리고 왕력은 한 세대가 탈락된 기록으로 간주하여 '訥祇王弟'와 '期寶葛文王' 사이에 '~之子'라는 문구가 생략되었다고 추정함으로써 기보(=습보)를 눌지왕 아우의 아들, 즉 조카로 파악하였다(강종훈, 2000『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34면 각주 44번). 근래에는 지증왕의 조부이자 습보의 아버지를 파호갈문왕(복호)로 이해함으로써 '내물왕-파호(복호)-습보-지증왕'이라는 가계를 상정한 연구도 있다(윤진석, 2014 앞의 논문, 50-53면).

60) 李基東, 1972 앞의 논문(1980 앞의 책, 66-68면에 재수록); 李光奎, 1977 앞의 책, 29-30면 및 93면; 이천우, 2016 앞의 논문, 144-14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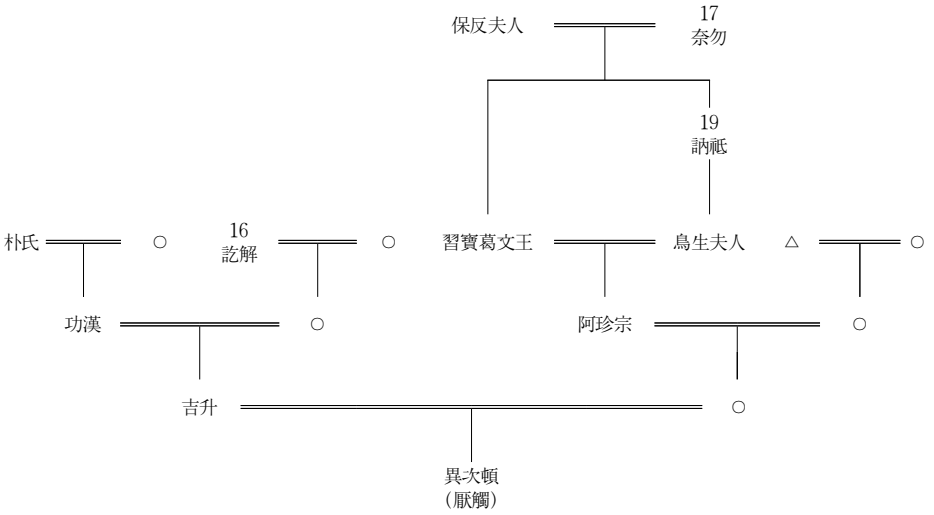
전승이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았다.

사실 신라본기와 왕력은 모두 직계에 대해서는 오류 없이 전달하고 있다.[61] 다만 부변을 중심으로 서술되던 계보 전승에 모변 전승이 끼어들어 혼동을 주었고, 후대의 연구자들이 앞선 시기의 근친혼 양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부변 계보만을 염두에 둠으로써 혼동이 가중되었던 듯하다. 내물왕의 증손이자 습보갈문왕의 아들이라는 전승(E-1)을 취신하여 지증왕의 조부에 대해 추정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E-1은 '내물왕-눌지왕-조생부인-지증왕'으로 이어지는 모변을 부변의 전승으로 혼동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

앞서 검토했듯이, 신라 왕위계승에는 어머니의 계보도 아버지의 계보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따라서 지증왕 어머니가 내물왕의 손녀이면서 눌지왕의 딸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을 테니 지증왕이 내물왕의 증손이라는 전승도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E-2에 보이듯이 지증왕의 아버지가 내물왕의 아들이라는 전승, 즉 지증왕이 내물왕의 손자라는 전승도 있었다. 그런데 신라본기의 찬자는 부변의 계보를 전해야하는 즉위조(E-1)에 모변 전승을 서술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다.

E-1에 모변 전승이 끼어든 까닭은 내물왕 직계의 근친혼에서 찾을 수 있다. 지증왕 부모의 혼인은 내물왕 아들(습보갈문왕)과 내물왕 손녀(조생부인)의 결합이었다. 즉 다른 세대 간의 근친혼이었다. 더욱이 습보갈문왕과 조생부인도 근친혼 소생이었으므로 양자의 혼인은 근친혼 소생 간의 근친혼이다. 이처럼 복잡한 지증왕의 계보가 E-1 기록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 비록 E-1은 오해에서 비롯된 서술이지만 의도치 않게 지증왕의 모변을 전하게 되었고, 복잡한 근친혼 양상의 일부를 드러내었다. 반대로 E-2는 부변인 '내물왕-습보갈문왕-지증왕'을 전한다고 볼 수 있다.

61) 河廷龍, 1994 앞의 논문, 59-60면에서 지증왕의 어머니 쪽 계보도 고려하면 신라본기와 왕력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신라본기에 어머니 쪽 계보가 남게 된 배경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그림 2〉 이차돈의 가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보 전승을 엿볼 수 있는 異次頓의 가계 기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三國遺事』 興法 元宗興法厭觸滅身 본문과 세주는 이차돈에 대한 각기 다른 계보를 전한다.[62] 본문의 '습보갈문왕-阿珍宗-■-이차돈(朴氏)'에서 습보갈문왕은 내물왕의 아들이고 눌지왕의 아우이므로 분명 김씨이니 그 아들인 아진종도 김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 아진종의 손자 이차돈은 박씨라고 한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아진종의 딸이 박씨 남성과 혼인하여 이차돈을 낳았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주의 '乞解大王-功漢-吉升-이차돈'에서 걸해대왕은 신라 16대왕인 석씨 訖解王을 말한다. 본문과 세주의 계보가 모두 맞다면, 〈아도비〉는 이차돈의 조모가 흘해왕의 딸로 석씨임을 말해주는 자료일 수 있다. 즉 이차돈의 계보는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라 여성도 포함된 형태로 전승되었다고 하겠다(그림 2).[63]

62) 『三國遺事』 卷3, 興法 元宗興法厭觸滅身 "姓朴, 字猒觸, 其父未詳, 祖阿珍宗, 卽習寶葛文王之子也. (중략) 【又按金用行撰阿道碑, 舍人時年二十六, 父吉升, 祖功漢, 曾祖乞解大王】."

63) 이차돈의 계보가 어머니를 통해 김씨 왕실과 연결된다고 파악하면서도 그를 박씨가 아닌 석씨로 이해하기도 한다(金毅圭, 1979 「新羅 母系制 社會說에 대한 檢討: 新羅親族硏究(其一)」 『韓國史硏究』 23, 54면; 강종훈, 2014 「『삼국유사』 「흥법」편 '원종흥법 염촉멸신'

이밖에 文武王도 자신이 모변으로 가야 首露王의 15대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64] 이차돈, 문무왕의 사례를 통해 신라에는 여성으로 연결되는 계보에 대한 인식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65] 그렇다면 E-1도 지증왕의 어머니 쪽 가계 전승을 드러내는 자료로 이해할 여지가 생긴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가 편찬된 고려시대에 여성을 통한 계보 인식이 존재했음을 드러내는 기록도 이러한 접근에 큰 도움이 된다.[66]

이러한 이해에 큰 무리가 없다면 居柒夫도 두 가지 계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三國史記』 居柒夫傳은 그가 金氏이고 내물왕의 5세손이며 조부는 角干 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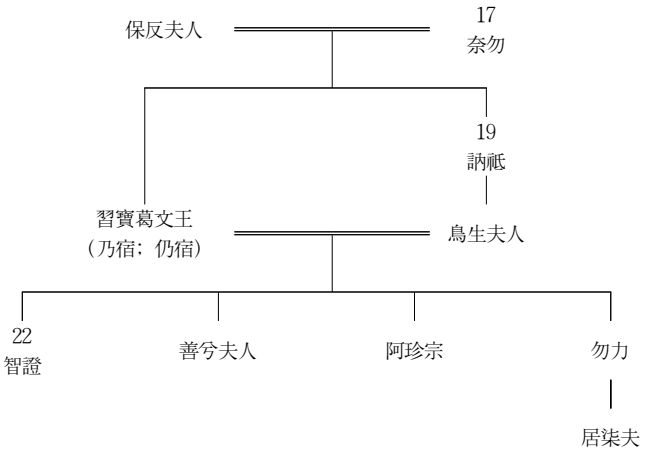
조 고찰」『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35, 213면 및 234-235면; 선석열, 2015 앞의 책, 128면 각주 23번). 朴堤上(金堤上), 異斯夫, 圓光 등 한 인물에게 복수의 姓 전승이 있는 까닭도 이차돈의 사례처럼 신라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계보 전승이 竝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에서 부계제가 확립되었지만 기층사회에서 모계계승이 병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金哲埈, 1968「新羅時代의 親族集團」『韓國史研究』1(1975『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73-177면에 재수록)]. 그러나 예시로 든 이차돈이나 圓光은 기층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신라의 계보 인식을 부계제 혹은 모계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64) 『三國遺事』卷2, 紀異 駕洛國記 "(전략) 洎新羅第三十王法敏, 龍朔元年辛酉三月日, 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衝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率友公之子庶云匝干之女文明皇后寔生我者. 玆故元君於幼冲人乃爲十五代始祖也."

65) 신라인의 世系 인식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①曾祖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親家側의 曾祖인지, 外家側의 外曾祖인지, 陳外家側(조모측)의 陳外曾祖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②五世孫이라는 기록은 子로만 이어지는 세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女가 끼어있는 사례도 포함하므로 ③신라인의 세계 기록을 아버지 쪽으로만 해석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인의 계보 인식은 왕이나 왕족 등 잘 알려진 인물을 기점으로 그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기점이 되는 인물과 자신을 이어주는 인물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파악하였다(金毅圭, 1979 앞의 논문, 51-54면).

66) 『三國遺事』卷5, 神呪 明朗神印은 埃白寺의 柱貼注脚을 인용하여 '慶州戶長巨川母阿之女, 女母明珠女, 女母積利女'라고 하여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계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高麗史』卷75, 志29 選擧3 銓注는 肅宗 이후 왕실 자손의 敍用을 언급하면서 그 대상을 '太祖內玄孫之孫, 外玄孫之子', '太祖同胞昆弟玄孫之子, 及外玄孫', '後代正統君王玄孫之子, 及外玄孫', '太祖內外苗裔', '太祖苗裔 挾十一女', '聖祖苗裔, 雖挾二十女', '(太祖) 內外五世玄孫之曾孫', '正統君王內外孫', '祖王苗裔, 無名者, 雖挾二十二女', '祖王親兄弟內玄孫之玄孫之孫・外玄孫之玄孫之子, 及歷代先王內玄孫之玄孫之子・外玄孫之玄孫', '祖王苗裔, 雖挾三女'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 여성을 통해 왕실과 연결되는 사람들도 왕실의 후예로서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宿, 아버지는 伊飡 勿力이라고 전한다.[67] 그런데 앞서 언급한 乃宿을 仍宿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68] 거칠부 아버지인 물력과 지증왕 · 선혜부인은 형제가 된다. 즉, 거칠부는 지증왕 · 선혜부인의 조카이다. 그렇다면 '내물왕-내숙(잉숙; 습보)-물력-거칠부'와 '내물왕-눌지왕-조생부인-물력-거칠부'라는 두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물왕 5세손'이라는 서술은 후자의 계보, 즉 조생부인이라는 여성이 포함된 계보를 전한다고 하겠다(그림 3). 이상에서 언급한 지증왕, 이차돈, 문무왕, 거칠부 등의 가계 기록을 통해 다양한 계보 전승이 병존하는 신라 계보 인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거칠부의 가계

한편, 지증왕의 즉위는 눌지왕-자비왕-소지왕으로 이어지는 부자계승의 틀에서 벗어난 형태였다. 이는 지증왕이 비정상적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견해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소지왕 사후에는 부자계승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소지왕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지만 그 어머니는 王京이 아닌 捺已郡 출신이었고, 신라 왕위계승에서는 어머니의 혈통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따라서 소지

67)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姓金氏, 奈勿王五世孫. 祖仍宿角干, 父勿力伊飡."
68) 李基東, 1972 앞의 논문(1980 앞의 책, 78면에 재수록).

왕의 아들은 왕위계승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69] 즉, 부자계승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증왕의 즉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더욱이 소지왕의 형제와 그 후손, 혹은 자비왕의 아우와 그 후손도 없었던 것 같다.[70]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내물왕 직계이면서 소지왕에게 가장 가까운 혈연(처남·고종사촌)인 지증왕의 즉위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결국 지증왕이 즉위함으로써 내물왕 직계는 다른 가계에게 마립간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권력을 독점하던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지증왕의 즉위는 내물왕 직계가 아닌 인물이 왕위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71]

사실 내물왕 직계는 근친혼을 권력 독점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지만, 계속된 근친혼은 스스로 혼인 대상 및 왕위계승권자의 숫자를 제약하는 조치이기도 하였

69) 碧花의 아버지 波路가 지방민이었기 때문에 그의 외손이 신라왕실에서 왕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추정은 경청할 만하다(李鍾旭, 1980 앞의 책, 88-89면). 벽화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까닭과 관련하여 憲德王 아들 心地의 사례를 주목할 수 있다. 『三國史記』 祿眞傳에 따르면 興德王은 형 헌덕왕에게 嗣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三國遺事』 義解 心地繼祖에는 승려 心地가 헌덕왕의 아들이라는 기록도 있다. 두 기록을 모두 믿는다면 헌덕왕에게 심지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심지에게는 '嗣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신분에 의해 심지가 '族降'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김창겸, 2013 「신라 승려 心地 연구: 삼국유사 「心地繼祖」와 관련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34, 217-218면).

70) 소지왕을 자비왕의 세 번째 아들로 기록한 D-2의 기록에 근거하여 소지왕의 형제와 그 후손, 자비왕의 아우와 그 후손이 있었고 이들이 지증왕보다 왕위계승순위에서 앞섰지만 지증왕이 非常한 방법으로 즉위했다고 본 연구가 있다(李喜寬, 1990a 앞의 논문, 73-74면). 반면, 소지왕에게 弟와 姪, 從弟와 從姪 등이 없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며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로가 갈문왕에 책봉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소지왕과 가장 가까운 혈연이 지증왕이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金羲滿, 1990 앞의 논문, 6-11면). 소지왕이 자비왕의 세 번째 아들로서 즉위했다면 두 형과 갈등이 발생했겠지만, 이와 관련한 사료는 전무하다. 어쩌면 두 형이 먼저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소지왕이 장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윤진석, 2014 앞의 논문, 51-53면). 이렇듯 내물왕 직계이면서 소지왕을 이어 즉위할 만한 인물이 사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張彰恩, 2007 「新羅 智證王의 執權과 對高句麗 防衛體系의 확립」 『韓國古代史硏究』 45, 105면). 따라서 소지왕에게 弟와 姪, 從弟와 從姪 등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71) 중고기 '聖骨男盡'의 상황에서 왕통이 다른 계보의 인물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善德王·眞德王 두 여왕이 연달아 즉위한 사례는 지증왕의 즉위 사정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근친혼 소생의 後嗣를 얻지 못한 소지왕의 뒤를 이어서 내물왕 직계이자 소지왕과 가장 가까운 친족인 지증왕이 즉위한 사실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72]

이제까지 눌지왕-자비왕-소지왕으로 이어지는 부자계승의 흐름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증왕의 즉위를 비정상적인 형태로 파악하였고, 더 나아가 이전 시기와의 단절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지증왕의 즉위는 내물왕 직계가 근친혼이라는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지증왕의 계보 전승이 상이한 형태로 남게 된 배경으로 복잡한 근친혼을 제시하였다. 본고보다 앞서 상이한 지증왕 계보 전승에 대해 규명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 신라본기(E-1)의 내물왕 曾孫이 실제 계보에 더 가깝지만, 지증왕이 왕위계승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를 내물왕의 孫으로 만듦으로써 왕력(E-2)의 전승이 남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73] 그러나 선대의 거듭된 근친혼으로 인하여 내물왕 직계 내부에서 소지왕과 가장 가까운 혈연이 된 그가 굳이 계보를 조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2) 葛文王 자격 변화와 至都盧葛文王

奈勿王 직계는 폐쇄적인 근친혼을 통해 왕위 독점을 이뤄냄으로써 마침내 金氏 세습에 성공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대를 이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소지왕을 기준으로 지증왕은 妻男, 고종사촌(4촌), 堂叔(5촌)이라는 복잡하고도 중첩된 친족이 되었다. 그러나 E-1은 지증왕을 소지왕의 '재종제(6촌)'라고 기록했을 뿐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제쳐두고 굳이 '재종제'로 기록한 찬자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왕위계승의 기본 원칙은 가까운 혈연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지증왕의 계보 전승 중 '재종제'에 대한 의문점을 葛文王 자격의 변화와 더불어 논의함으로써 至都盧葛文王 등장의 배경을 드러내고자 한다.

習寶葛文王(卜好=乃宿=仍宿)과 巴胡葛文王(未斯欣)은 모두 내물왕의 아들이

72) 본문에서 언급한 근친혼의 한계는 지증왕부터 진지왕까지 박씨 왕비를 맞이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73) 李鍾旭, 1980 앞의 책, 32-33면.

며 눌지왕의 아우이다. 이들은 王弟로서 갈문왕이 된 가장 이른 사례로 파악된다.[74] 이전 시기인 이사금기에 王妃의 아버지, 王母의 아버지(왕의 외조부), 그리고 왕의 아버지가 갈문왕이 되었던 前例와는 다른 양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습보갈문왕과 파호갈문왕은 王弟이면서 왕비의 아버지이기도 하였다. 파호갈문왕의 딸이 자비왕과 혼인하여 소지왕을 낳았고, 소지왕이 습보갈문왕의 딸인 선혜부인과 혼인하였다. 즉, 눌지왕의 두 아우인 습보와 파호는 근친혼을 통해 왕비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때 이들이 갈문왕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이전처럼 '왕비의 아버지'라는 자격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습보와 파호는 내물왕의 아들이자 눌지왕의 아우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내물왕 직계가 갈문왕의 자리도 차지하게 되었다. 습보와 파호의 사례는 이후 갈문왕 자격에 영향을 주어 왕제도 갈문왕 자격 중 하나가 되었다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中古期에도 6명의 갈문왕이 확인된다(附圖 2).[75] 立宗葛文王은 法興王의 아우이자 眞興王의 아버지였고, 眞平王 왕모의 아버지였다. 眞正·眞安葛文王은 진평왕의 두 아우였고, 이 중 후자는 眞德王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리고 福勝葛文王은 진평왕비의 아버지였고, 飮葛文王은 善德王의 배필이었다.[76] 마지막으로 眞

74) 李基白, 1972 앞의 논문(1974 앞의 책, 12-13면에 재수록).

75) 〈昌寧眞興王巡狩碑〉에 ■■葛文王이 보이지만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진흥왕의 아우로 보는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肅訖宗[李基白, 1972 앞의 논문(1974 앞의 책, 13면에 재수록)], 혹은 福勝(文暻鉉, 1990 앞의 논문, 163-165면; 문경현, 1993「上中古期 新羅六部의 史的 考察」『國史館論叢』 45, 159-161면; 윤진석, 2014 앞의 논문, 73-74면)으로 파악한다. 한편, 文興葛文王은 중고기의 인물이지만, 그가 갈문왕에 봉해진 시기는 아들 武烈王이 즉위한 이후인 中代이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6) 伯父·叔父와 조카가 혼인하는 당시의 근친혼 양태, '飮'과 '飯'의 유사함 등을 고려하면 진평왕의 아우인 伯飯과 國飯 중 한 명이 선덕왕의 배필인 飮葛文王일 수 있다. 음갈문왕을 백반, 즉 진정갈문왕으로 보는 의견은 이미 제시된 바 있지만(문경현, 1993 앞의 논문, 160-161면), 이에 대한 논거를 몇 가지 보충해보고자 한다. 眞安葛文王 國飯이 음갈문왕이라면 국반의 딸 진덕왕과 선덕왕은 4촌이자 모녀가 되지만 신라본기와 왕력은 진덕왕의 어머니를 각각 朴氏 月明夫人과 박씨 阿尼夫人으로 전할 뿐, 선덕왕과 진덕왕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眞安葛文王 國飯보다는 眞正葛文王 伯飯이 음갈문왕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이는 추정일 뿐이므로, 여기에서는 음갈문왕과 진정갈문왕을 별개의 인물로 분류하였다. 한편 백반이 음갈문왕이고 선덕왕과 혼인했다면, 그는 聖

德王의 외조부, 즉 진덕왕 왕모의 아버지는 滿天葛文王으로 박씨이다.[77] 이상 여섯 인물 중 입종, 진정, 진안 등 3명이 왕의 아우라는 조건을 갖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입종갈문왕은 〈蔚珍鳳坪新羅碑〉(524)의 徙夫智葛文王 및 〈川前里書石 追銘〉(539)의 徙夫知葛文王과 동일인물이다. 524년은 법흥왕의 치세이므로 아직 입종갈문왕이 진흥왕의 王父나 진평왕 왕모의 아버지라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시기이다. 즉, 그는 왕제라는 자격만으로 갈문왕에 봉해졌다. 다음으로 진정·진안갈문왕은 오로지 왕제의 자격으로 갈문왕에 봉해질 수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사례이다. 진평왕이 즉위 원년에 자신의 두 아우를 갈문왕에 봉한 기사가 남아 있고, 이때는 진정·진안갈문왕이 왕제 이외의 다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이다.[78] 즉, 王弟 복호(습보갈문왕)와 미사흔(파호갈문왕)이 근친혼을 통해 妃父의 지위를 얻고 갈문왕이 됨으로써 이후 '왕제'라는 지위도 갈문왕 자격 중 하나로 고려되었고 중고기에는 왕제라는 조건만으로도 갈문왕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였다.[79]

骨이면서 진평왕의 아우이자 사위가 되므로 진평왕을 이을 강력한 왕위계승권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평왕 사후에 즉위한 인물은 백반이 아니라 善德王이었으므로 그는 진평왕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聖骨男盡'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반도 진평왕에 앞서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77) 기존의『三國遺事』왕력에 진덕왕의 외조부를 '奴追■■■葛文王'이라고 했으나 최근 알려진 파른본『三國遺事』왕력에는 '奴角干追封滿天葛文王'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는 파른본을 따라 滿天葛文王으로 하겠다.

78)『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진평왕 元年 "封母弟伯飯爲眞正葛文王, 國飯爲眞安葛文王." 진안갈문왕은 진덕왕의 아버지라는 자격도 갖추고 있지만 이는 진덕왕이 즉위한 이후에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진덕왕 즉위보다 이른 시점인 진평왕 원년의 기사를 통해 진안갈문왕이 왕제라는 자격만으로 갈문왕에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음갈문왕의 사례를 토대로 여왕의 배필을 갈문왕의 자격으로 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확언하기 어렵다. '여왕(선덕왕)의 배필'이라는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이 자격은 선덕왕이 즉위한 시점에서 의미가 생긴다. 만약 음갈문왕이 진정갈문왕이더라도, 그가 갈문왕에 책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왕의 배필보다는 왕제라는 자격이 더 우선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79) 갈문왕은 왕과의 관계를 통해 봉해졌다면서 눌지왕부터 진덕왕까지는 대체로 王弟가 갈문왕인 시기로 파악한 의견은 논지 전개에 큰 도움이 된다[李基白, 1972 앞의 논문(1974 앞의 책에 재수록)]. 한편, 눌지왕대 이후 王弟가 갈문왕이 되었다며 葛文王制의 改編을

결과적으로 내물왕 직계는 근친혼을 행함으로써 갈문왕 자격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갈문왕 자리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 내물왕 직계의 근친혼은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 혹은 방책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사흔(파호갈문왕)이 서불한에 추증되고 내숙(복호; 습보갈문왕)이 이벌찬으로 활약했음을 고려하면 갈문왕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 혹은 상징성을 가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80] 진평왕이 즉위하자마자 원년에 왕제 둘을 갈문왕으로 봉한 일을 통해서도 갈문왕 책봉의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밖에 〈냉수리비〉의 至都盧葛文王도 이 시기의 인물이다. 그는 사료 E에서 智大路, 智度路 혹은 智哲老라고 한 지증왕과 동일인물로 파악된다. 앞에서 언급한 갈문왕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자격을 지증왕에게 대입하면서 지증왕의 계보 문제도 논의해보겠다. 먼저 妃父와 王母의 父이다. 妃父 혹은 王母의 父라는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사위 혹은 외손이 왕위에 올라야만 한다.[81] 그러나 지증왕에게는 딸이 없고, 세 아들만이 확인된다.[82] 다음은 王의 父이다. 이 자격은 그의 아들이 즉위한 다음에야 발동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인 법흥

언급한 연구도 있지만, 그 배경을 근친혼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다(宣石悅, 2003 앞의 논문, 101-103면).

80) 미사흔의 사망시기는 433년이고 그 사위인 자비왕이 즉위한 때는 458년이다. 따라서 미사흔은 생전에 갈문왕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불한으로 추증되고 이후 갈문왕에 봉해지는 것으로 보아 갈문왕이 갖는 상징성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갈문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갈문왕이 王弟로서 국왕을 보좌하고 국왕의 유고시에 대리할 수 있는 존재이며 왕실 종친회의인 화백회의의 수장이라는 의견(朴南守, 2003 앞의 논문, 212-221면), 왕제인 갈문왕은 제사권을 장악하여 정치·군사권을 장악한 마립간의 왕권을 보좌하였고 국왕(마립간) 유고 시에 즉위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宣石悅, 2003 앞의 논문).

81) 갈문왕의 자격 중에 왕비의 아버지(왕의 장인)나 왕모의 아버지(왕의 외조부)가 있다는 사실은 갈문왕이라는 지위가 사위(외손)에게도 왕위계승권을 인정하는 신라의 특수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시사한다.

82) ①法興王 ②立宗葛文王 ③異次頓의 외조부 阿珍宗. 한편, 朝鮮 純祖 14년(1814)에 건립한 〈新羅敬順王殿碑〉에 따르면 元聖王의 7대조 眞宗은 지증왕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료는 한참 후대에 작성한 기록이고, 眞宗이라는 인물이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下代의 실질적인 개창자인 원성왕이 지증왕과 계보상 연결된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왕이 즉위한 이후에 선왕을 낮춰 갈문왕이라고 부를 리 없고, 〈냉수리비〉는 법흥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건립된 비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자격은 王弟이다. 지증왕의 형제에 대하여 정보가 많지 않지만, 왕위에 오른 인물은 없다(그림 3). 갈문왕의 여러 자격 조건을 간략하게 검토했으나 지증왕이 갈문왕에 책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찾기 어렵다. 다만 지증왕의 계보 전승 중 소지왕과의 관계인 '재종제'를 언급한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E-1의 '내물왕 증손'은 근친혼으로 인한 복잡한 혈연관계를 혼동하여 모변의 전승이 끼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모변 전승의 끼어들기는 '재종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재종형제(6촌)는 증조부를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증손과 재종제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증왕과 소지왕을 재종형제 관계로 기록한 까닭은 이들을 모두 부변으로 내물왕의 증손으로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부변이 아니라 모변으로 따져야 증조부대에 해당하는 인물을 공유한다. 바로 내물왕이다.[83] 따라서 소지왕과 지증왕은 부변으로 6촌인 재종형제가 될 수 없고, 모변으로 증조부대의 인물을 공유하므로 모변 6촌인 같은 세대의 형제이다(堂姨表兄弟).[84] 즉 '재종제'는 내물왕을 지증왕 부변의 증조부로 파악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내물왕의 증손'이라는 전승이 채록되면서 '소지왕의 재종제'라는 잘못된 기록도 남게 되었다고 하겠다.[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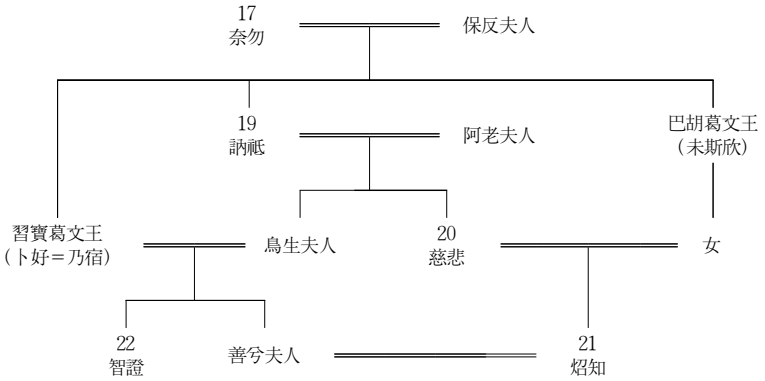
'재종제'는 갈문왕 자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갈문왕의 자격 중 하나가 王弟였기 때문이다. 지증왕은 소지왕의 堂叔이지만 妻男, 고종사촌, 모변 6촌형제(堂姨表兄弟)였으므로 소지왕과 같은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그림 4).[86]

---

83) 소지왕의 외조부인 파호갈문왕과 지증왕의 외조부인 눌지왕은 형제이므로 소지왕과 지증왕 모두에게 모변으로 증조부대(어머니의 조부)에 해당하는 인물은 내물왕이다.

84) 堂姨表兄弟는 堂姨母(母의 堂姊妹=外祖父의 형제의 딸)의 아들이다(崔在錫, 1988『韓國의 親族用語』, 民音社, 104-105면).

85) 소지왕이 고구려에서 돌아온 卜好(習寶)의 아들인 지도로를 對고구려 관계에서 활용하고자 재종제라는 '假 혈연관계'로 설정하여 갈문왕에 책봉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이천우, 2016 앞의 논문, 147-148면). 그러나 소지왕과 지증왕은 모변으로 6촌형제(당이표형제)이고 신라본기 찬자는 부변 6촌인 재종형제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재종제는 '假 혈연관계'가 아니라 찬자의 오류로 볼 수 있다.



〈그림 4〉 소지왕과 지증왕의 혈연관계

어쩌면 친형제가 없었던 소지왕 입장에서는 중첩된 관계로 인하여 같은 세대 내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된 지증왕을 넓은 의미의 '왕제'로 간주하여 갈문왕으로 책봉했을 수 있다. 다소 무리한 추정일 수 있으나, 당시 갈문왕 책봉의 경향이나 이후 중고기에 왕제가 갈문왕이 되는 현상, 그리고 소지왕의 가족 관계를 따져보면 고려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87] 이러한 추정은 갈문왕이 세습되지 않고, 왕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지위라는 의견과 맞닿아있다.[88]

86) 소지왕과 지증왕이 결코 同世代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의견도 있다[李基東, 1972 앞의 논문(1980 앞의 책, 70면에 재수록)]. 그러나 이는 부변만을 고려한 결론이다.

87) 立宗, 眞正, 眞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왕제가 갈문왕 자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때, 즉 왕제라는 조건만으로 갈문왕이 되는 시기는 중고기이다. 소지왕 때에는 아직 왕제가 갈문왕 자격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로를 '광의의 왕제'로 간주하여 갈문왕에 책봉하는 일도 가능했으리라 본다.

88) 문경현은 가계가 확인되는 '습보-지도로-입종'의 3대를 갈문왕 세습으로 보면서, 진덕왕의 외조부인 복승을 입종의 아들이자 진흥왕의 아우로 파악하여 '습보-지도로-입종-복승'의 갈문왕 4대 세습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왕과 갈문왕이 세습하면서 각각의 部를 통솔했다고 주장하였다(文暻鉉, 1990 앞의 논문; 문경현, 1993 앞의 논문). 윤진석은 이를 더 확장하여 '파호(복호)-기보(습보)-지도로-입종-복승'의 5대 세습을 언급하였고, 二王(매금왕·갈문왕)의 二元的 구조도 수용하였다(윤진석, 2014 앞의 논문). 그러나 남아있는 자료로는 '습보-지도로-입종'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갈문왕이 세습되는 듯 보이는 이유는 지도로갈문왕의 아들인 법흥왕이 즉위하자 왕위에 오르지 않은 다른 아들인 입종이 왕제로서 갈문왕에 책봉되었기 때문이다. 즉, 세습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갈문왕은 세습되지 않고 왕과의 관계에 따라 책봉되는 지위

소지왕이 지증왕을 광의의 '王弟'로 보아 갈문왕으로 책봉했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E-1에 따르면 지증왕 즉위 당시 나이는 64세이다. 그가 소지왕에게 광의의 왕제라면, 소지왕은 사망 당시에 지증왕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지증왕이 소지왕보다 年上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지왕 부모의 혼인 시기를 고려하면 소지왕은 사망 당시 40세를 넘지 않는다.[89] 그리고 지증왕은 부변으로 내물왕의 손자이며 모변으로 내물왕의 증손인 반면 소지왕은 모변과 부변으로 모두 내물왕의 증손이기 때문이다. 아마 소지왕이 先王이기 때문에 나이 서열이 바뀌어서 전승되었던 것 같다.[90]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증왕이 갈문왕으로 책봉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물왕 직계는 근친혼을 통해 마립간뿐만 아니라 갈문왕까지 독점하며 권력을 장악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부였던 왕제가 갈문왕이 되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생각하면, 後嗣와 왕제가 없었던 소지왕은 내물왕 직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과 중첩된 친족관계를 갖고 있던 지도로를 '광의의 왕제'라는 자격으로 갈문왕에 책봉하였고, 소지왕 사후에 지도로갈문왕이 즉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물왕 직계의 왕위세습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다.[91]

이다. 한편, 갈문왕이 세습된다는 의견은 갈문왕을 王族의 독립된 氏族 및 家系의 長으로 보는 이기백의 견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李基白, 1972 앞의 논문(1974 앞의 책에 재수록)].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예시로 거론한 진정갈문왕이나 진안갈문왕을 독립된 가계의 장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립된 가계의 장'은 그 가계를 이어간 후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두 인물에게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진평왕 사후에 여왕이 등장하지 않고 두 갈문왕의 아들 중 누군가가 즉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後嗣 없는 진정갈문왕과 진안갈문왕의 가계를 '독립된 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

89) 李基東, 1972 앞의 논문(1980 앞의 책, 68-70면에 재수록).

90) 윤진석, 2014 앞의 논문, 48-50면. 이밖에 소지왕은 내물왕의 장자인 눌지왕의 직계이지만, 지증왕은 내물왕 衆子의 후손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91) 다만 소지왕이 지도로를 왕위계승권자로 염두에 두고 갈문왕에 봉했으며 그가 소지왕의 의도대로 繼位했는지, 아니면 소지왕 사후 가장 가까운 친족인 지도로가 왕위에 올랐고 그의 지위가 갈문왕이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4. 맺음말

내물왕 직계의 왕위 독점은 尼師今에서 麻立干으로의 왕호 변화에 영향을 끼쳤고, 이들의 후예가 결과적으로 訥祇王부터 신라 마지막 왕 敬順王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동안 왕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내물왕 직계의 왕위 독점 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은 신라 왕권의 추이를 탐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권력 장악과 혼인', 특히 근친혼에 주목하여 그 과정에 접근하면서 그동안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지증왕의 계보 전승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김씨는 집권 과정에서 혼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세습 이전(이사금기)에는 최고 지배층으로 편입하는 수단이었고, 세습 과정(마립간기)에서는 왕위를 독점하고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도구였다. 특히 세습 과정에서 나타난 혼인은 내물왕 직계의 근친혼이라는 특수한 형태였다. 이처럼 김씨가 혼인을 통해 왕위에 오르고, 근친혼을 수단으로 하여 왕위를 독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위도 왕위계승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계보의 인물이 사위로서 왕위에 오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왕위를 독점하고자 근친혼을 이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더욱이 근친혼 과정에서 葛文王의 자격에 변화가 일어나 내물왕 직계가 갈문왕 자리도 차지하였다. 갈문왕은 주로 妃父를 대상으로 책봉되었지만 마립간기에는 근친혼으로 인하여 王弟이자 妃父인 사례가 있었고, 결국 갈문왕의 자격에 王弟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중고기에는 왕제라는 자격만으로 갈문왕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지증왕의 계보 전승에 대하여 근친혼 양상을 고려하며 재검토함으로써 다양한 계보 전승이 병존하는 신라 계보 인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三國史記』 신라본기와 『三國遺事』 왕력은 지증왕 직계에 한하여서는 잘못된 정보가 없었다. 다만 근친혼으로 인한 복잡한 혈연관계가 신라본기 찬자의 혼동을 야기하여 부변 전승을 기록해야할 즉위조에 모변의 전승인 '내물왕 증손'이 끼어들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소지왕의 '재종제(6촌)'라는 기록은 모변 6촌형제(堂姨表兄弟)를 부변으로 이어진 관계로 잘못 파악한 흔적이자 갈문왕의 자격 변화

를 드러내는 단서로 추정하였다. 재종형제는 증조를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소지왕 재종제'는 지증왕의 부변 증조부를 내물왕으로 잘못 파악한 결과물이다. 이처럼 『三國史記』 신라본기의 지증왕 계보에는 모변 전승의 흔적이 남겨져있다. 그러나 후대의 연구자들이 거듭된 근친혼과 모변 전승에 대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부변만을 의식함으로써 지증왕 계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된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본기가 편찬된 고려시대에 여성을 통한 계보 인식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렇듯 내물왕 직계의 권력 장악과 왕위 독점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지증왕의 즉위는 혈연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왕통으로서 '지증왕계'를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지증왕은 내물왕계와 다른 혈통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물왕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인물이다. 그 선대가 대를 이어 근친혼을 거듭하여 부변과 모변이 모두 내물왕 직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증왕이 갈문왕에 봉해지고 후에 즉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미 장악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내물왕 직계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겠다. 더욱이 중고-중대-하대의 왕들 중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증왕 후손이지만 이들은 계보의 기점을 지증왕이 아닌 내물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내물왕계 내부에서 지증왕계가 分枝化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고기 왕통을 지증왕계로 지칭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92]

神宮 설치(정비),[93] 축성, 그리고 지방제도 정비 등은 소지왕과 지증왕 치적의 공통점이자 마립간기 내물왕 직계에 의한 여러 개혁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자비왕부터 소지왕을 거쳐 지증왕까지 확인되는 축성기사는 辰韓 小國의 해체 및 영역화, 그리고 지방관 파견과 州郡制 실시에 밀접하게 연결된다.[94] 또한 殉葬 금지, 牛耕의 도입, 新羅라는 國號 사용, 麻立干에서 王으로의 王號 변화, 喪服法

92) 이와 관련하여 무열왕계나 원성왕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이재환, 2017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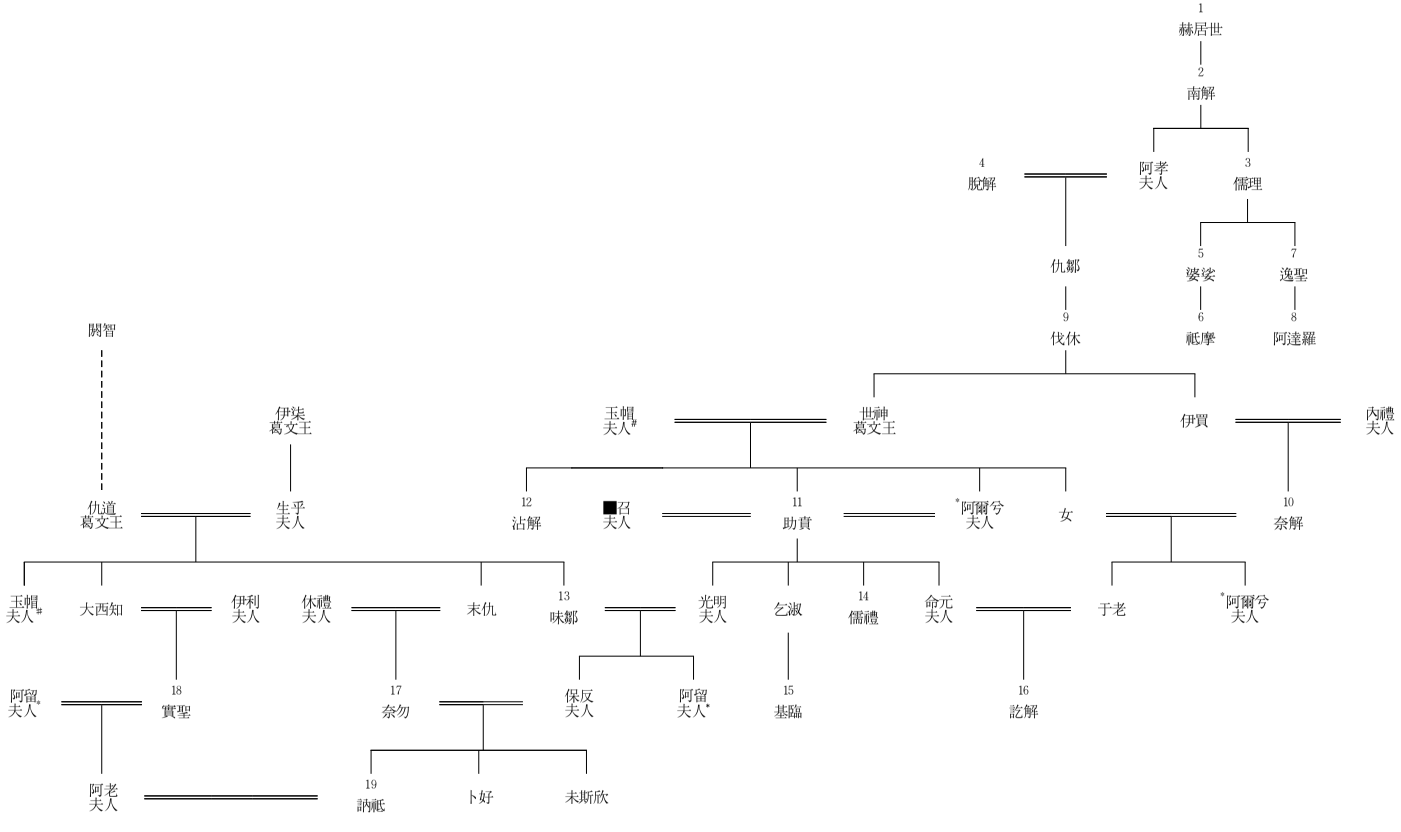
93) 신라 神宮 설치시기를 『三國史記』 신라본기는 소지왕 9년(487), 同 祭祀志는 지증왕대로 전한다. 두 기록을 모두 존중하여 전자는 설치, 후자는 정비 혹은 제도의 정착으로 이해할 수 있다(崔光植, 1983 「新羅의 神宮 設置에 대한 新考察」 『韓國史硏究』 43, 62-65면).

94) 全德在, 1990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硏究」 『韓國史論』 22, 45-5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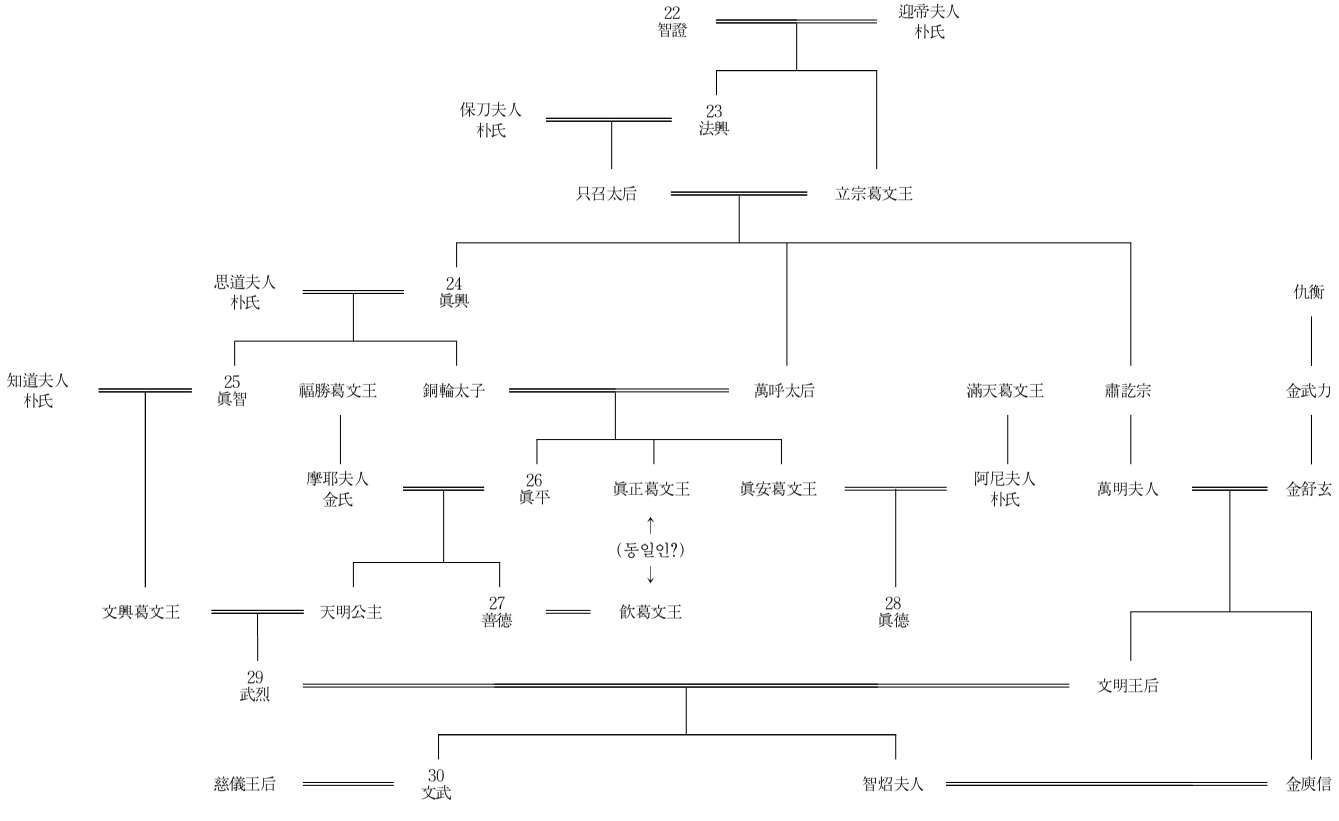
제정 등은 지증왕 권력의 기반이 단기간에 이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증왕의 대변혁은 내물왕 직계가 구축해온 강력하고 견고한 권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6세기 초 제작된 금석문에서 기존의 육부체제로부터 탈피하여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는 양상도 대변혁과 궤를 같이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지증왕의 즉위는 혈연이나 치적으로 보아 이전 시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도 파악할 여지가 충분하다.

주제어 : 智證王, 系譜 傳承, 母邊, 奈勿王 直系, 사위의 왕위계승권, 近親婚, 葛文王

투고일(2019. 2. 18), 심사시작일(2019. 3. 8), 심사완료일(2019. 3. 19)



〈附圖 1〉신라 상고기 삼성교립의 실제



〈附圖 2〉 신라 중고기 왕위계승도

〈Abstract〉

Power grab of King Naemul's direct descendants and genealogy transmission of King Jijeung focusing on the incestuous marriages

Park, Jooseon *

Due to the son-in-law's right of throne succession, Kim of Silla was included in the top tier in the Yisageum period(尼師今期) and King Naemul(奈勿王)'s direct descendants monopolized the throne in the Maripgan period(麻立干期). The direct descendants of King Naemul made the opposite use of it through incestuous marriages to prevent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to other household figures. In addition, as the king's younger brother became the father of the queen because of the incestuous marriages, they could even take the position of Galmunwang(葛文王). It caused the change in the qualification of Galmunwang, and in middle ancient period(中古期), there was a character who became Galmunwang in the status of only a king's younger brother. As such, King Naemul's direct descendants actively utilized the incestuous marriages in the process of grabbing the power.

It has been difficult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a coherently by identifying the genealogy of King Jijeung(智證王) in Samguk-sagi and Samguk-yusa only as his fathers' genealogy. Examining his ancestors' incestuous marriages, we can find that his mother's genealogy remained in the record of Samguk-sagi. So, each of these two records represents both maternal and paternal genealogy, which together lead the reconstruction of complex blood ties caused by incestuous marriages. In addition, coexistence of various genealogies, which characteristic of Silla's genealogy awareness, could be seen through Yichadon(異次頓) and King Munmu(文武王). This study found that King Soji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炤智王) designated his closest relative Jidoro(King Jijeung's name before enthrone) as Galmunwang, and Jidoro succeeded to King Soji in order to keep on gripping power and monopolizing the throne by King Naemul's descendants in the direct line.

Key Words : King Jijeung(智證王), genealogy transmission, mother's genealogy(母邊), King Naemul(奈勿王)'s direct descendants, son-in-law's right of throne succession, incestuous marriages, Galmunwang(葛文王)